

중앙회

“회장단·이사·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2 009년 04월 21일 (화)에 11:00 “회장단회의” 와 13:00 “회장단·이사·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가 중앙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에너지절약과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2009년도 단합체육대회와 관련하여 확정된 장소(강릉시 주문진에 소재한 강북공설운동장)와 일시(2009. 05. 26 10:00부터 2009. 05. 27 15:00까지 1박2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회조직을 편성하고 각 업무를 분장하였다. 전국을 지역별 안배하여 총 17 팀을 구성하고, 각 팀의 선수대표를 선출하였다. 경기종목 및 대회규정 승인, 선수 선서문 채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을 열띤 토론 후 결정하였다.

또 중앙회에서는 간부수련회, 업무자질향상 교육, 재직자향상 무료교육, 국가자격증취득 대비교육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무료로 발급해 주는 회원증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토론하였다.

양주지회

독거노인 연탄보일러교체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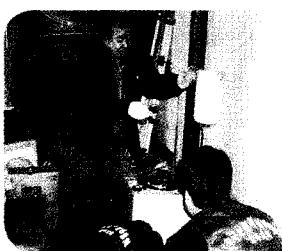


양주

지회(고종
문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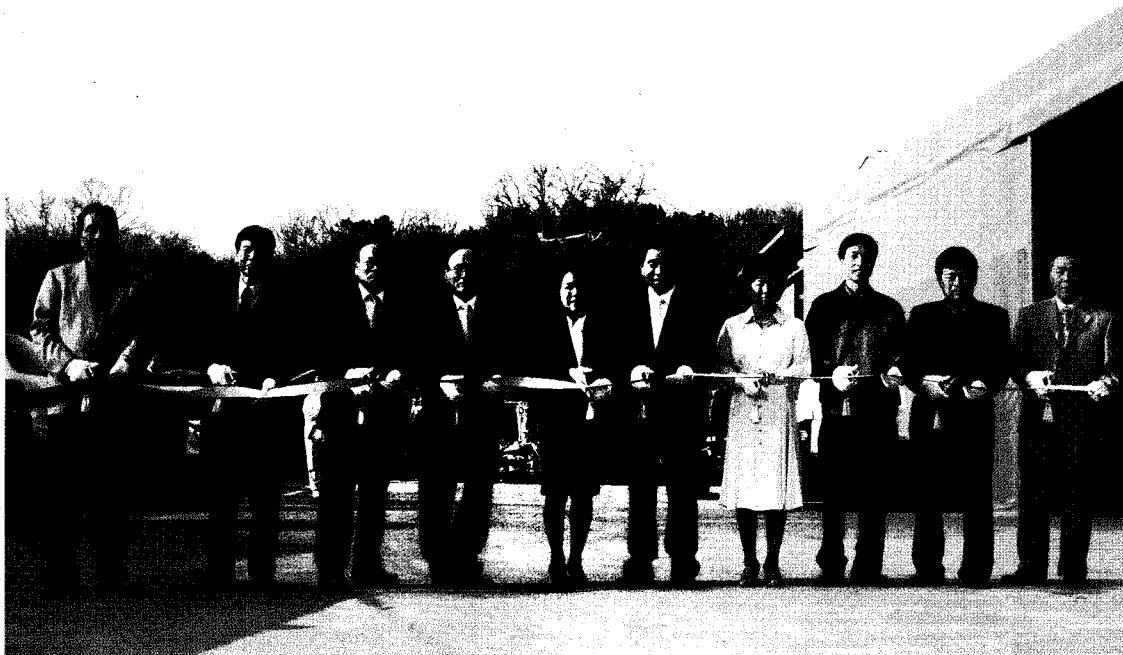
는 지난 4월 7일 백석읍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낡은 연탄보일러를 지회임원과 회원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교체하여 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고종문 지회장은 우리
의 작은 정성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외로운 독거노
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연탄보일러를 교체하여
주고 난방시설안전점검을 하여 주는 것 자체가 보
람이고 기쁨인데, 그 이웃들이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쁨이 두 배가 된다고 밝힌 후,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여주신 양주지회 회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시간 나는 데로 봉사활동의 기회를 확대 하자고 다짐하였다.



이현주 부회장 (주)야자나무 준공

천연재료만으로 만들기에 건강에 절대 무해



전국 보일러설비협회 이현주 부회장(경동건설 대표)은 지난 4월 10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주)야자나무라는 제조공장을 준공하는데 우리협회에서는 박기준 중앙회장, 박중배 부회장, 문쾌출 부회장과 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하였다.

이현주 부회장은 야자 속은 천연야자열매에 있는 단단한 부분을 탄화시켜 그 가루를 압축시켜 만든 속이라고 제조공정을 설명하고, 천연재료만으로 만들기에 건강에 절대 무해하며, 화력이 좋고, 연소할 때에는 불꽃이 튀거나 연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연소 후에도 재는 아주 소량만 남아 아주 친환경적이라 설명하고, 또 고기에는 야자향이 스며들어서 참나무 속의 향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향을 지닌 장점들을 지녔다고 설명하였다.



태양열 전문기업 강남

태양열 온수기를 통한 사랑나누기



▲ 태양열 전문기업 강남의 대리점 대표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강남을 사랑하는 모임(강사모) 회원들은 앞으로 매달 셋째주 금요일에 독거노인 가구나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남은 올해 초 박근성 대표와 대리점 사장을 주축으로 한 강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강사모)을 결성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는 경기도 포천의 광릉수목원이 있는 직동을 찾아 마을회관에 진공관형 태양열온수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마을 내에 기존에 설치된 제품들에 대해 무상 A/S와 부품교체 등을 진행하는 등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 강사모는 매달 세번째 금요일을 봉사활동을 하는 날로 정하고, 마을이장, 구청, 시청 등의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가구,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과 공동 이용 시설에 300~400만원대의 태양열 온수기 제품을 기증할 계획이다.

박근성 대표는 “강사모는 경제적인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사회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업,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를 위한 작은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